효광원

2023 Vol.37

한마루

한마루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출하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효광원
보호치료시설

Contents _ 목차

Vol.37

03 교사 글 - 김중훈 교사

05 아동들의 글 - 차○오, 안○민

08 퇴소자의 글 - 서○성

10 2022년 기획사업
- 청소년과 원가족의 행복한 추억만들기 여행프로젝트(위드캠프)
- 밥상머리 작은기적 요리교실
- 정신·심리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
- 아동 치료 재활지원 사업

12 주요 프로그램

13 집단 상담 프로그램

14 효우리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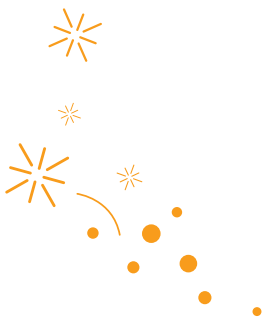
16 효광원 활동 모습

20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21 후원금 세입·세출 총괄내역

22 운동장 개방 안내

23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한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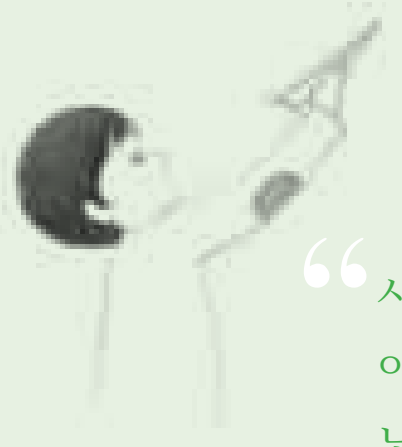
발행처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전화 042)271-7053 **팩스** 042)271-5775
발행인·지도신부 김현 마태오 **편집** 김중훈
e-mail hkw7053@hanmail.net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글_김중훈 교사

아침에 눈을 뜨기 전부터 아이들의 일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간밤에 안 좋은 일은 없었을까? 무엇으로 우리 반 아이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사회에 나가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까? 를 생각하며 출근을 하게 됩니다.
효우리들과 함께 지내는 하루의 시간 안에 기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ADHD, 분노조절 장애, 품행 장애, 아스퍼거 장애 등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주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상담과 치료 공동체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깨달아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입사하기 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격려도 해주었지만 “힘들지 않을까?”, “아이들이 무척 힘들게 할 거야.” 등 걱정과 당부도 전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걱정과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해맑은 얼굴로 저를 향해 먼저 인사해주고 다가와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전에 살레시오에서 느꼈던 아이들의 모습과 순수함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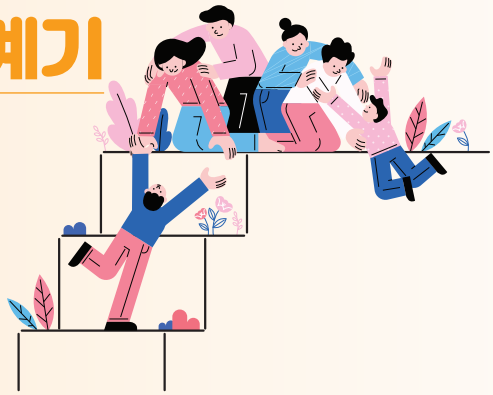
>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가가도록
> 노력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아이들에게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을까? 주변의 편견과 다르게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간직한 채로 정직한 사람으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효광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빈 머리가 아닌 청소년 전문가,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가는 선생님, 친구, 형,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가 되도록 다짐해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 저는 알레르기로 인해 눈이 가려워 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효우리들이 먼저 알아봐 주고 “선생님 왜 안대 했어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등등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안부를 물어보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둔기로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타인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해주는 순수한 모습이 숨겨져 있었음을요. 효우리들의 불량스러운 행동과 말투로 인해 좋은 점들이 가려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는 효우리들에게 저 역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가가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어엿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효광원에서 배우고 퇴소하여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더 이상 상처에 붙잡혀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효우리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늘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효우리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계기



글_차○오

안녕 효우리! 이·미용반 세우미 차○오입니다. 지금부터 6개월간의 효광원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월 15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효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6호를 다시 받을 것이라곤 예상도 못 했던 저는 엄청 화가 나고 막막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효광원에 와서 다른 효우리들과 도망갈 생각만 했었습니다. 하루하루 위태로운 생활을 하다가 신입반 담당 김덕진 선생님의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으로 마음을 잡고 생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본 반에 왔지만, 여전히 효광원에서의 생활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아동들처럼 성장단계를 올리려 노력하고, 조심히 지내다 보니, 바르미, 도우미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 한번 없이 잘 생활하고 성장단계까지 올렸던 저는 들뜬 마음에 같은 반 효우리에게 시비를 걸었고, 결국 몸싸움으로 번져서 첫 교사참도움과 재평가 1개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효광원에서의 실패가 처음이었던 저는 성장단계하락까지 하자 멘탈이 붕괴된 채로 1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생각을 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아끼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은 1주일을 더 보내고 결국 도우미 복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성장단계를 회복하고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세우미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세우미가 되고서는 차분하고 열심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주를 보낸 뒤 담임선생님께서는 최상위 성장단계인 이끄미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짐과는 다르게 평소 생활관 정리를 잘하지 못했고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저는 선생님들께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겠어.' 등의 지도를 받으며 아직 이끄미의 성장단계에 오르기에는 부족한 것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이끄미를 못 올라간 후 첫 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쓸데없는 말수를 줄이고 선생님들 안 보는 곳에서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세우미지만 제가 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다음 주에는 성장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는 효광원에서 생활하며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예도 해보고, 이·미용 필기시험도 보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느끼

는 따스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에서 처음으로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효광원에서 멋진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도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범죄와 폭력이 일상이였던 제 삶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12일 동안 최고 성장단계인 이끄미에 오르도록 노력하며 운동 또한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변화되어진 나의 삶을 꿈꾼다

글_안○민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 5월 24일에 입소한 안○민입니다. 저는 신입반 때 재평가 4개월을 받고 본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4개월을 받은 이유는 신입 시절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절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탈 모의를 통하여 효광원에서 이탈하려고 계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효우리와 고성방가와 말대 제조 등의 규칙 위반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해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앞날에 대한 생각 없이 살다가 '너 그러다 곧 변경 가게 될 거야'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주변의 효우리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9호로 변경이 되면 더 빨리 집에 가겠지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같은 신입 반 황○비 효우리에게 이탈하자고 말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부모님께 더 이상 실망을 끼쳐 드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잘 살고 빨리 나와서 절대 떨어지지 말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며 부모님께 죄송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후회와 '변경가겠지'라고 포기를 하며 지내던 중 조○룡 효우리가 멘토로 올라와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형 곧 변경 갈 거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렇게 살아?" 저는 그 물음에 "이미 늦었고, 변경가게 될 거라고, 포기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룡이는 용서는 구해 봤는지 물어왔습니다. "이미 늦은 거 뭐하러 용서를 구하냐"라고 말하자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거야?"라는 말에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행동과 생각에 신중해지자고 다짐을 하고자 명심을 하였고 신부님, 선생님들께 용서를 청하고 법원소환을 갔습니다. 법원소환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떨어져서 살지 말고 같이 살자며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

행스럽게 저는 판사님께 용서와 기회를 받고 돌아오며 잘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본 방에 와서 김중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잘못에 대해 혼내는 것만이 아닌 그때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잘못의 원인을 찾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생각 이상으로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지나 않을까 다른 효우리들이 약하게 보고 대들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착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선생님께 실망시키지 말고 재평가 깍고 정상 퇴소하기로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어려웠고 본 방에서도 교사참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시 생각이 들었고 행동에 조심하고 지내자 저의 성장단계는 도우미로 올라갔고 재평가도 무사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옳은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계기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다시는 실망 시켜드리지 말자는 다짐이 되었고, 두 번째는 저에게 주어진 재평가로 인해 신중하게 지내자고 생각하며 생활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퇴소하면 저는 성인이지만 학교에 복학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고 안 치고 군대도 바로 입대할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상위성장단계인 세우미가 되었습니다. 상위성장단계인 만큼 사회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의 연세가 68세이신데 지금까지 아버지의 속만 태웠습니다. 나가서 효도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효도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비행과 올바름의 구별? '옷'

글_서○성

안녕 효우리 제빵반 이끄미 서○성입니다.
언젠가는 쓰게 될 퇴소 인사를 고민하며 저는 어떻게 하면 나만의 퇴소 인사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신입반 때부터 이 글을 쓸 날을 기다렸고, 효우리들이 보고 있는 빔 프로젝터의 퇴소자 명단에 늘 제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많은 효우리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2021년 7월 7일 7호 처분을 받고 효광원 바로 옆에 있는 대전 소년원, 대산학교에서 6개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5개월 만에 재범을 하였고, 그 결과 2022년 6월 8일 5,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TV에 나오는 제 또래 애들은 자신만의 노력으로 그에 따른 성과를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인생을 허비하며 사회와 단절된 채 저의 꿈과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은 불타지만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야 하기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이 좋았습니다. 그 시간 책을 읽고 글 쓰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졌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풀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효우리들은 사회에서 한 범죄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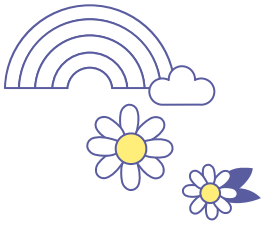
여러분의 삶을 반성하고 들뜨지 않는 선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 시간은 의미가 있고
동시에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가정환경과 주변 환경을 탓하며 이것에 얽혀서 살 생각인가요?

언젠가 김만수 선생님과 외진을 나가며 나누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김만수 선생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은 노는 애들하고 놀지 않는 애들을 구별하는 법이 뭐야?"라고, 저는 그 질문에 한참을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낸 저의 답은 '옷'이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은 대부분 노는 애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만수 선생님은 "그럼 어쩌다 범죄에 손을 대는 거야?"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만수 선생님의 질문에 "멋을 부리고 싶어하는 어린 애들은 부모님께 졸라서 명품 옷을 입고, 그런 아이들의 무리에 속해 있다가 거기서 또 다른 애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려고 또 못 건들게 하려고 동네의 잘나가는 형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그 형들과 함께 범죄하여 공범으로 6호, 9호, 10호 같은 시설에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연 멋을 부리는 것이, 먹어주는 인생인지 지금 되물어본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꿈을 펼친다는 형식적인 말이 아닌 퇴소 후 학교를 성실하게 다님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내걸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의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반성해 보고 들뜨지 않는 선에서 효광원 생활을 보낸다면, 그 시간은 의미가 있고 동시에 재미있게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효우리 여러분들.



기획사업 I

청소년과 원가족의 행복한 추억만들기 여행프로젝트(위드캠프)

지원기관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사업목적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인 위드캠프 참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들의 캠프참가 의지를 고취시켜 가족기능 회복과 강화를 목적으로 함.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대상자(입소 청소년과 보호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입소 청소년과 보호자)

기획사업 II

밥상차리 작은기적 요리교실

지원기관 한끼 100원나눔운동본부

사업목적 비행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요리 방법을 습득하여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함으로써 건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생계를 책임지는 바쁜 부모를 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청소년

기획사업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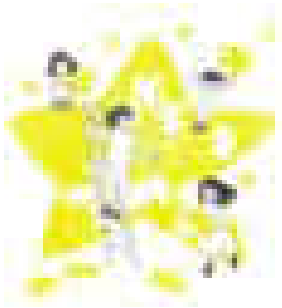
정신·심리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기관 대전광역시, 대전아동복지협회

사업목적 심리·정서·인지·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통합사례관리 개입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더불어 아동의 원가족, 시설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의 전인적 성장 도모함.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청소년



기획사업 IV

아동 치료 재활지원 사업

지원기관 아동권리보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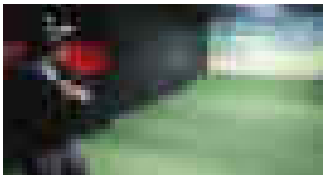
사업목적 시설 아동 대상의 아동역량강화사업으로 종합심리검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 함.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학대와 상처로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과 주도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 함.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청소년

효광원 주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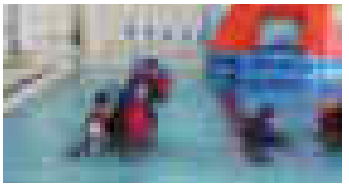
01. 동계·하계방학 레포츠데이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서 실시하는 동계·하계방학 레포츠 활동 프로그램. 입소청소년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레저 스포츠 및 취미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

★ 매년 7월 ~ 8월(하계방학), 12월 ~ 1월(동계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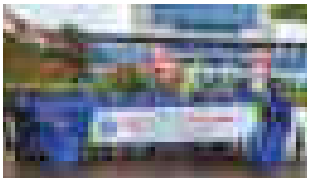
02. 海바라기 캠프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양과 해양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관련 지식을 배양하며 관련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동시에 현장체험 활동으로 재원 아동들의 심신단련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박 3일간 진행하는 해양 힐링캠프

★ 연간 1회 실시,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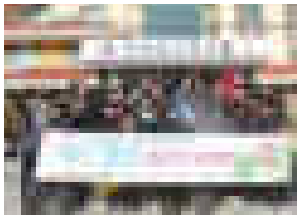
03. 국토종단 및 횡단



심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의 자세 등을 배워 보호치료 목적 달성에 기여함. 동시에 입소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 2박 3일(5월, 10월)

04. 위드 캠프(WITH CAMP)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입소청소년들의 보호자가 효광원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보호자 캠프를 통해 교육이수와 함께 캠프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을 기하는 프로그램

★ 매월 1회 1박 2일간 실시

05. 대전학원강사연합회 학습지도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입소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 기초학습 지도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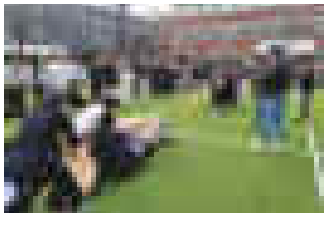
★ 연중 과목별 주 1회

06. 겨자씨 검정고시 학습

충남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 된 입소청소년들의 검정고시 대비 학습지도 프로그램

★ 연중 주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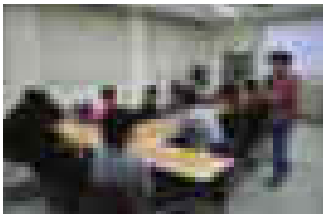
07. 춘계·추계 체육대회



효광원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유도하고 동료들간 협동심 배양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도모. 이를 통해 사회적응 능력 훈련과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연간 2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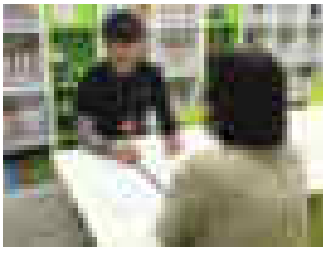
효광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01. 성교육 치료집단



성경험 또는 성관련 위험군을 대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하여 왜곡 된 성의식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지지하는 치료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3월,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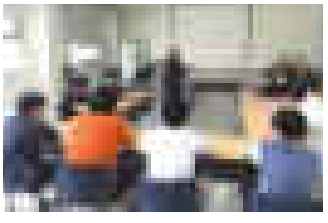
02.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금연치료'



금연지원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금연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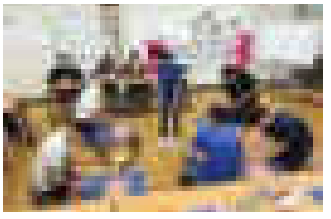
★ 연간 12회 실시

0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 '도박중독 치료집단'



도박 폐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밖 고위험 청소년에게 도박행동 인지, 정서, 욕구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는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하도록 안내하여 퇴소 후 맞이하게 될 고위험 도박 상황에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연간 4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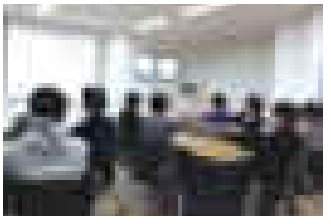
0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두드림(Do Dream)



꿈:드림,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 연간 3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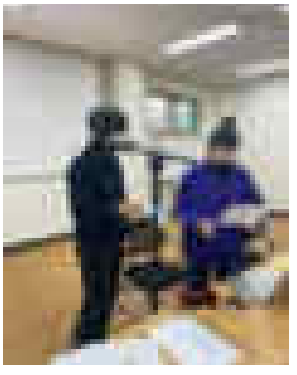
0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 'HI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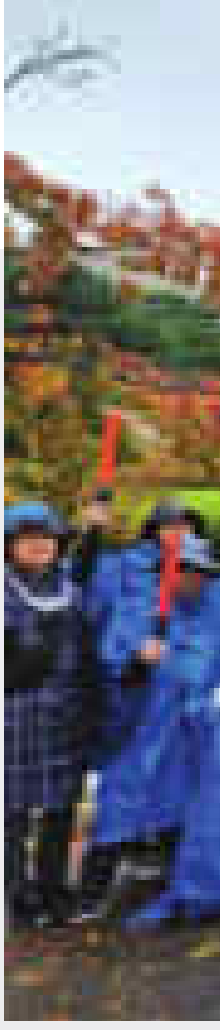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진로고민을 해결하고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취업 지원이 되도록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

06. 음악·크로스핏 집단치료 프로그램



음악적·체육적 환경 안에서 제시되는 과제를 통해 사회적 규칙, 태도를 학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하며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인지시키고자 함. 그룹원과 협동하며 다양한 과제를 완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연간 8회 실시



독수리캠프

밥상머리요리교실 도시락배달봉사

효우리 이모저모

우리 효우리들이 효광원을 통하여
사랑과 희망을 배우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슈퍼스타일

국토횡단4기

개인외출

두드림 프로그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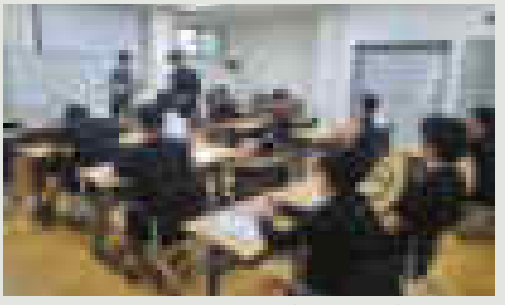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세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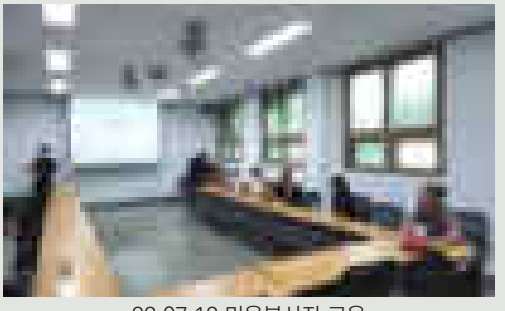
효광원 활동모습

7월

22.07.05 한끼백원나눔운동본부 요리교실 중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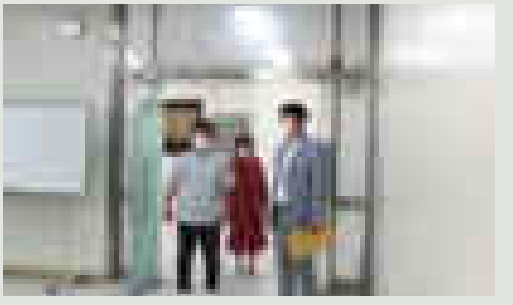
22.07.09 학습반 수업(대건고 교사)



22.07.12 미용봉사자 교육

22.07.20 더해피백 물품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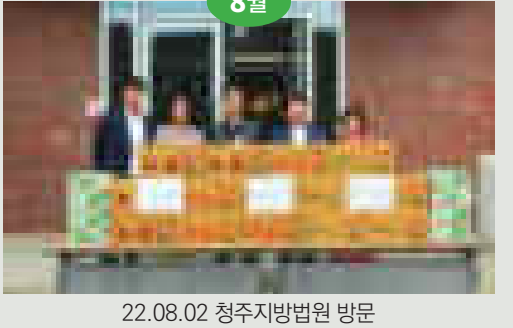
22.07.21 두드림 응급구조교육 및 시험사진



22.07.21 서울행정법원 방문

22.07.29 세례식

8월



22.08.02 청주지방법원 방문

묵주의 기도는 단순하고 깊이가 있어 모든 지는 종교 제외를 준비합니다. 행사 장소 할 거대치 않고 할 수 있습니다. - 교황 바오로 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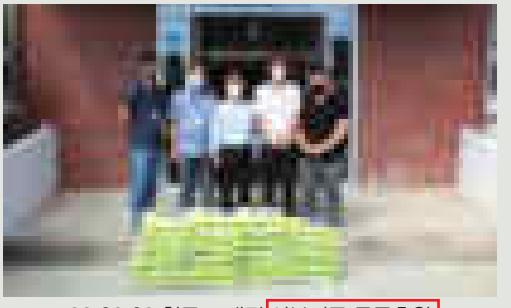
22.08.03~05 레포츠 데이

22.08.18 담임교사와 추억만들기

22.08.29~31 해양캠프 참여

9월

22.09.01~02 독수리 캠프



22.09.02 천주교 대전 서부지구 물품후원

22.09.06 계룡건설 물품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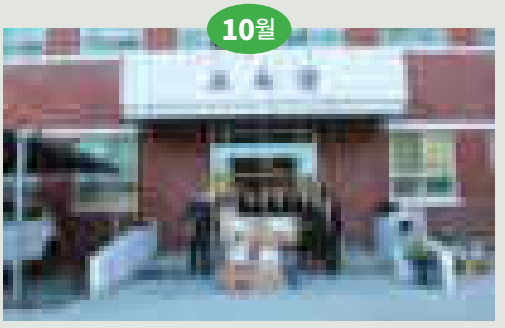
22.09.09~12 추석 프로그램

22.09.19. 근린공원청소봉사

이성의 권고에 지혜는 올바른 지혜로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사가의 성 요한

효광원 활동모습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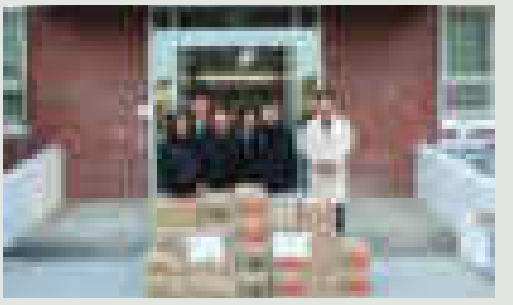


22.10.18 서울가정법원 방문

22.10.20~21 템플스테이

22.10.26 슈퍼스타일

22.10.27 광주가정법원 방문



22.10.27 창원지방법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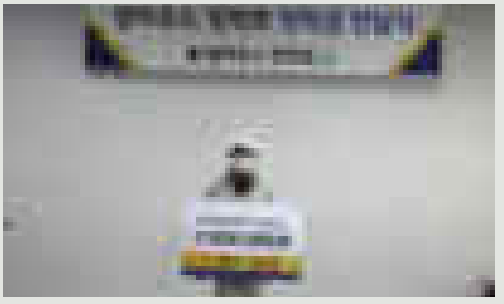
11월

22.11.01~03 추계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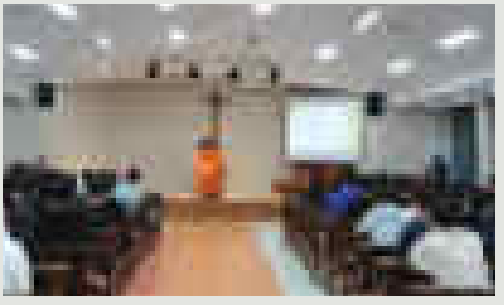
22.11.21~22 효광원김장

22.11.25 세례식

당신을 갈망할 때 찾고 찾을 때 기다리고 기다릴 때 찾아내고 찾아낼 때 사랑하게 하소서. - 성 안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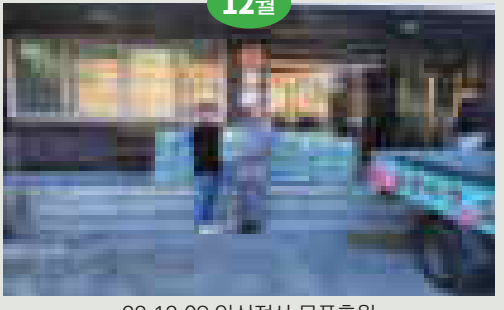


22.11.25 퇴소아동 장학금수여식



22.11.30 가수 김동욱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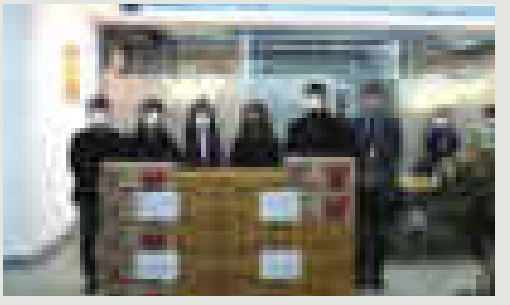
12월



22.12.08 안심정사 물품후원

22.12.15 밥상머리요리교실 도시락배달

22.12.20 삽겹살 파티(문창동성당)



22.12.21 춘천지방법원 방문

22.12.23 개인외출

22.12.24 성탄전야미사

참된 기도를 연습하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오 - 성 마가리오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효광원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과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예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의 정성을 이곳에 올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후원금 내역

07월 ~ 12월

명랑핫도그(박범현), 이형석, 안영선, 심재광, 박미라, 국민은행 대전은행동 종합금융센터, 장윤정(이환희), 코밴아이러브피플, 김왕수, 김민석, 신혜영, 주혜진, 오세정, 강아영, 가마치 통닭(박영자), 안상길, 김현주(이성훈), 김명오(규암), 김영란, 이정구(현대정형외과), 박도봉(오정자), 정마르가리타, 신정자, 대동성당, 한산성당, 이룸스틸(추성호), 김현, 서윤성, 할머니 추어탕, 김민경, 한정현 주교님, 김순금, 조인경, 송순영(규암성당), 규암성당, 이주사목국, 탄방동성당, 박정빈

2022년도 하반기 후원물품 내역

07월 ~ 12월

성심당, 투썸남대전IC, 대전아동복지협회, 더해피백,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정류장 약국, 박지훈(바비큐치킨앤비어), 산내동주민센터, 구오컴퍼니(신형오), 대전꿈드림센터, ㈜흥일식품, 동구청, 대전시청,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합덕 선교사, 하나은행 소상공인, 산내복지만두레, 사랑의 열매, 동구의회, 코레일사회봉사단, 상인축산주식회사, 천주교 대전교구 서부지구, 천양원, 탄방동성당 자매들, 법동성당, 내동성당, 월평동성당, 문창동성당, 최창호, 관저1동성당, 이자영(송지섭), 강남규, 오리온재단, 최홍승, 안심정사, 부산신자, ㈜제트, 성우보육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계룡건설, 지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

자원봉사자

피아노 | 한진우, 김안진
학습지도 | 최선희, 이진희, 박해숙, 이지연, 한진규
학원연합회 검정고시 학습 | 이봉환, 정경희, 조혜진, 이지연, 강수미, 김기정, 최 강, 강선숙, 최경진
이용 자원봉사자 | 김보경, 송민아, 박선화, 강희연, 최금숙, 도하연, 김지연, 최미옥, 정대영, 이영진, 임재명, 황종섭, 전효진, 손명주, 문재식, 최인서, 김성주, 조현빈, 장희정, 김종숙, 육중현, 육용례, 김영화

2022년 보호치료시설효광원

후원금 세입·세출 총괄내역

사 업 명 전체
자금원천 후원금
검색기간 2022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세입과목			세입
관	항	목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15,942,810
		비지정후원금	14,730,000
		합 계	30,672,81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 이자수입	1,098
세입계			30,673,908

세출과목			세출
관	항	목	
사무비	기타운영비	기타 후생경비	1,065,700
	운영비	제세공과금	2,100,000
		회의비	286,500
		여비	116,000
		수용수수료	2,169,220
		공공요금	163,920
		차량비	179,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651,030
		피복비	1,909,600
		의료비	318,700
		수용기관경비	18,039
		직업재활비	390,000
		특별급식비	206,960
		연료비	-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18,511,930
		자립지원사업비	-
		교육재활 사업비	-
		도서구입비	392,850
	잡지출	반환금	1,806
세출계			28,481,265

운동장 개방 안내

개방시간

토요일 15:00~17:00 **공휴일** 09:00~17:00

준수사항

1. 오토바이, 자전거 , 인라인 스케이트 출입금지
2. 애완견 출입금지
3. 화기 사용금지
4. 흡연, 음주, 취사, 고성방가 절대금지
5. 시설물 파손시 변상 조치함.

※ 운동장 사용시 시설장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

☎ 문의 : 042)271-7053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후원방법

- 무통장입금 : **농협 453046-55-002444(효광원)**
- 내 원 접 수 : 본 원에 방문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물품후원

- 쌀, 과자, 라면, 과일, 생필품(휴지, 세탁세제 등)

결 연

- 보호자나 연고자가 없는 청소년에게 재원기간동안 면회 신청, 물품 후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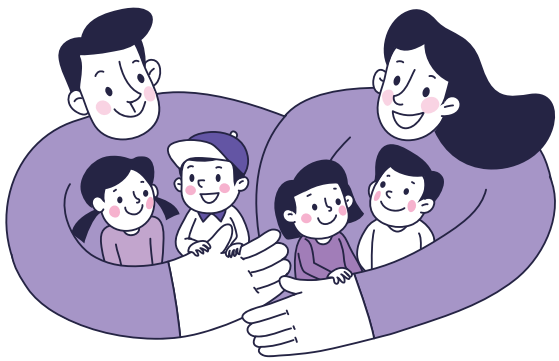
자원봉사 안내

노력 봉사 **활동내용** : 시설청소, 식사(간식)제공, 식당지원 봉사, 생일자행사지원 등

학습 봉사 **활동내용** : 교과목 및 특기 적성 교육(기초학습, 검정고시, 대입수학능력시험 준비)

전문분야 봉사 **활동내용** : 축구, 헬스, 농구, 음악, 미술, 미용,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체험 봉사 **활동내용** : 문화 체험 초청



전화문의 042-271-7053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시(낭월차고지방향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내리면 됩니다)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11번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512번
- 대전 복합터미널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 서대전역네거리 정류장 : 513번
- 정부청사(남문)터미널 정류장 : 108번

자가 운행 시

- 남대전 톨게이트에서 대전역 방면 1.6Km 전방 오른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남대전 톨게이트 방면 1Km 전방 왼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34704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Tel 042)271-7053 Fax 042)271-5775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E-mail hkw7053@hanmail.net